

여론브리핑 제56호  
EAI · 한국리서치 8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8월 이명박 대통령 국정평가 및 정당지지율 변화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노익상 사장)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일반 국민여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치사회 의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매월 20일 전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EAI 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국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본 여론조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조사일시 : 8월 22일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pm 3.5\%$

응답율 : 12.5%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여론브리핑 제56호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철

1. 이대통령 지지율 6.8%p 상승 37.3%. 중도층에서 지지율 큰 폭 상승
2. 정당지지도: 교착국면 한나라당 27.6%, 민주당 22.0%, 무당파 30.1% 3개월 째 변동 없어
3. [부록] 교차표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mailto: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 1. 국정지지율 분석 : 중도실용주의 효과 재점화되나?

김전대통령 서거 정국 하 MB 지지율 6.8% 상승

중도층에서 지지율 13.1%p 급상승, 최근 경제지표 및 남북관계 개선도 한 몫 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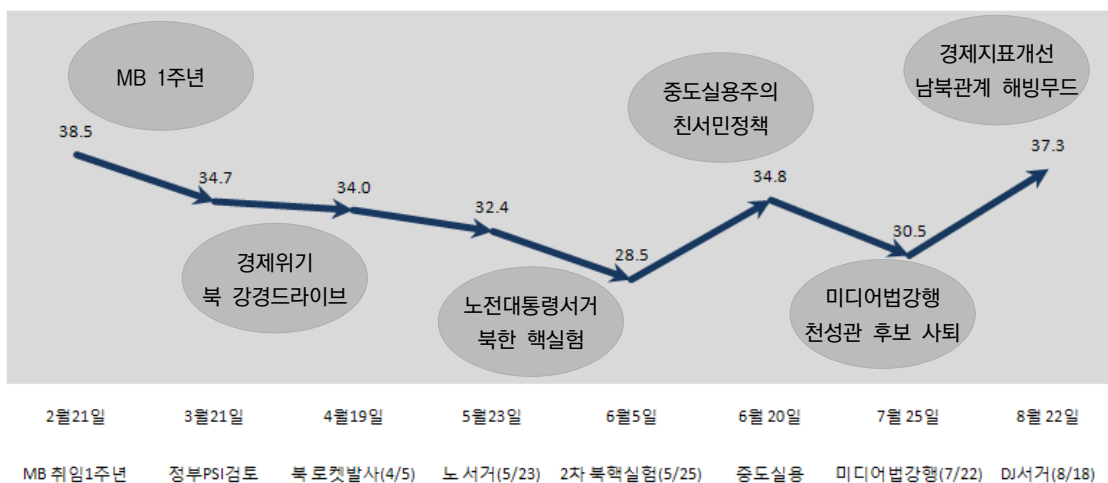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 · 정원철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5월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장례기간 중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37.3%로 전월대비 6.8%p 상승했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 22일 실시한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다. 세대로 보면 30대에서 국정 지지율이 정체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세대, 전지역, 전 사회계층에서 고르게 지지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의 지지기반인 저소득층(100만원 미만)에서 국정지지율이 50.1%, 중졸이하 층에서 61.9%, 50대 이상 61.4%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 ■ 지지율 반등: 각종 경제지표 호전, 남북관계 훈풍 작용한 듯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경제 및 남북관계에서 정부에 유리한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 하에서 한국경제가 이미 출구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남북관계에서도 최근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 여기자 및 현대 직원이 연이은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 이후 석방되었고 이산가족 상봉 등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교류의 물꼬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 중도실용노선 효과 재점화되나? 이념적 중도층에서 13.1%p 지지 상승, 보수층 MB지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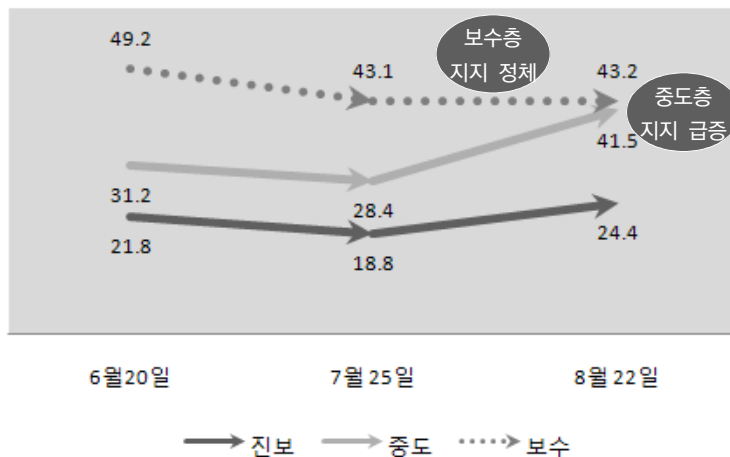
또한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및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로 주춤했던 중도실용주의 및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6월 내내 정부 및 여당은 정치적 비판과 지지율 하락을 겪어야 했지만 중도실용주의 및 친서민정책을 내세워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 40%대 진입을 앞둔 시점인 7월 들어 미디어법 강행처리 및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를 계기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도 실용주의 및 각종 서민/중산층 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 지지율 재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념층별로 지지율 반등규모를 보면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지난 6월 20일 49.2%, 7월 25일 조사에서 43.1%, 이번 조사에서도 43.2%로 정체되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6월 31.2%, 7월에는 28.4%로 떨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1.5%까지 높아졌다. 7월 대비 13.1%p나 증가하여 보수층에서의 국정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보층에서는 역시 7월에 비해 5.6%p 상승한 24.4%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 DJ 서거 정국, 국장 예우 등 정치적 포용도 악재 막아

이와 함께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청와대 및 검찰의 압박을 서거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사인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청와대가 일부 보수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장(國葬)’으로 장례를 치루는 등 각별한 예우를 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2] 이념성향별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표1] 사회계층별 국정지지 비율 변화 (%)

세대	6월20일	조사시점		증감
		7월 25일	8월 22일	
20대 이하	19.4	18.1	23.9	5.8
30대	19.7	18.0	17.8	-0.2
40대	32.4	27.5	31.7	4.2
50대 이상	55.4	47.8	61.4	13.6
<b>지역</b>				
서울	39.4	32.5	37.2	4.7
인천/경기	37.3	33.2	42.5	9.3
대전/충청	30.9	20.0	26.6	6.6
광주/전라	12.0	8.2	12.5	4.3
대구/경북	49.4	47.8	50.0	2.2
부산/경남/울산	34.9	37.3	39.5	2.2
강원/제주	27.3	13.9	51.9	38.0
<b>소득</b>				
100만원 미만	55.1	33.7	50.1	16.4
101~200만원	33.4	35.5	41.5	6.0
201~300만원	34.9	32.1	38.1	6.0
301~400만원	34.5	25.9	31.2	5.3
400만원 이상	24.2	27.6	29.9	2.3
<b>학력</b>				
중졸이하	46.4	39.5	61.9	22.4
고졸	37.5	33.5	41.6	8.1
대재이상	29.3	22.8	27.7	4.9
<b>정당지지</b>				
한나라당	75.0	69.4	79.0	9.6
민주당	8.9	4.8	11.2	6.4
무당파	29.3	26.5	28.8	2.3

## 2. 정당 지지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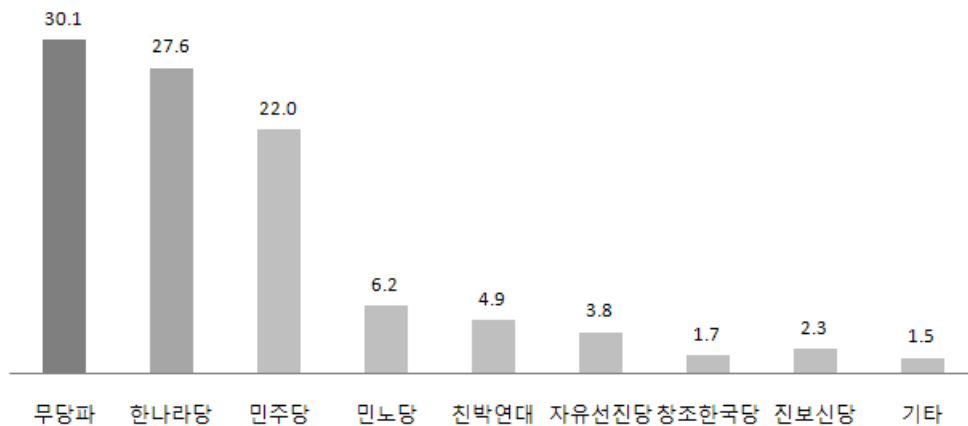
### 6월 변동 이후 정당 지지율은 교착상태

- 무당파 30.1% 한나라당 27.6%, 민주당 22.0%, 민주노동당 6.2%, 친박연대 4.9% 등
- 6월 변동 이래 정당 지지율 변화 거의 없어

8월 정당지지율을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파’가 30.1%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자가 27.6%, 민주당 지지자가 22.0%로 뒤를 이었다. 민주노동당 6.2%, 친박연대는 4.9%, 자유선진당은 3.8%에 그쳤다. 창조한국당 1.7%, 진보신당은 2.3%였다.

최근 정부가 중도실용주의와 친서민 정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것과 달리 한나라당은 정당지지율에서 지난 6월 조사에서 29.0%, 7월 조사에서 26.9%에 머물렀고 이번 조사에서도 27.6%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즉 대통령지지율 상승이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는 친이, 친박간 계파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확대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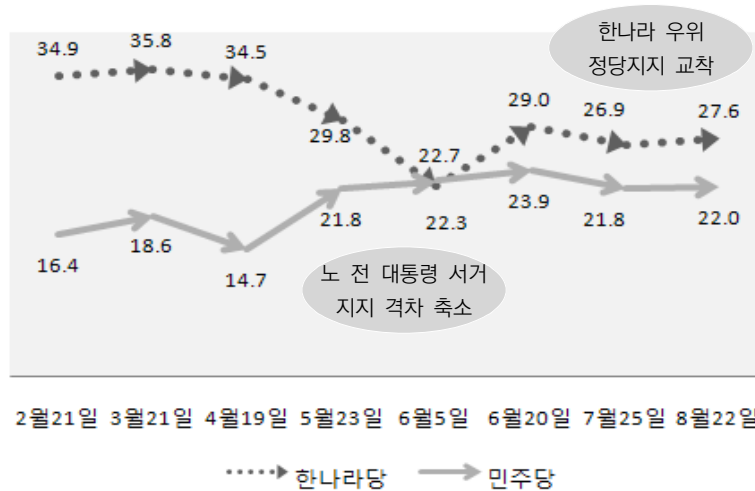
[그림1] 8월 정당 지지율(%)



미디어법 파동 이후 장외투쟁에 집중해온 민주당 역시 노대통령 서거 직후 20%대로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던 민주당도 이후에는 지지층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전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민주당은 10%대의 지지율이 유지되었지만 5월 노대통령 서거 후 20%대로 진입하여 6월 조사에서 23.9%, 7월 조사에서 2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8월 조사에서도 22.0%로 변화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적 상주역할을 하는데 집중해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추모 여론을 정당 지지기반 확대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정치적 상주역할에 집중하면서 7월 22일 여당 주도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래 집중해온 장외투쟁이 중단되었지만 뚜렷한 정책 대안 없이 장외투쟁에만 집착함으로써 야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8월)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친박 연대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2/21	34.9	16.4	2.7	6.7	-	1.5	2.5	3.1	32.2
3/21	35.8	18.6	4.0	7.1	-	3.5	2.8	2.2	25.9
4/19	34.5	14.7	3.1	6.8	-	1.8	2.9	2.1	34.0
5/23	29.8	21.8	4.2	6.4	-	1.2	2.2	3.1	31.2
6/5*	22.3▼	22.7▲	1.9▼	5.2▼	3.3	1.0▼	1.7▼	0.3	41.6▲
6/20	29.0▲	23.9▲	3.7▲	6.2▲	-	1.6▲	2.4▲	4.3▲	29.0▼
7/25	26.9▼	21.8▼	3.0▼	6.6▲	4.2	2.1▲	2.0▼	2.7▼	30.7▲
8/22	27.6▲	22.0▲	3.8▲	6.2▼	4.9▲	1.7▼	2.3▲	1.5▼	30.1▼
증감	+0.7	+0.2	+0.8	-0.4	+0.7	-0.4	+2.3	-1.2	-0.6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부록] 국정지지율/정당지지율 교차표

응답자 분포표

Base=전체	사례수 (명)	%
■ 전 체 ■	(800)	100.0
○ 성 남 ○	(395)	49.4
여 자	(405)	50.6
○ 연 19 - 29 세 ○	(164)	20.5
30 대	(177)	22.1
40 대	(181)	22.7
50 세 이 상	(277)	34.6
○ 학 중 ○	(120)	15.1
고 졸 이 하	(240)	30.0
전문대 재학 이상	(404)	50.5
모름 / 무응답	(35)	4.4
○ 직 종 ○	(42)	5.2
농 / 임 / 어 업	(109)	13.6
자 영 업	(68)	8.5
판매 / 영업 / 서비스	(42)	5.3
생산 / 기능 / 노 무	(167)	20.8
사무주관 / 전 부	(193)	24.2
학 부 생	(97)	12.2
무직 / 기타 / 무응답	(82)	10.2
○ 가 구 소 득 ○	(100)	12.4
100 만 원 이하	(157)	19.6
101 - 200 만 원	(181)	22.6
201 - 300 만 원	(122)	15.2
301 - 400 만 원	(175)	21.9
401 만 원 이상	(66)	8.2
기타 / 무응답	(170)	21.2
○ 권 서 역 ○	(220)	27.5
인 천 / 경 기	(80)	10.1
대 전 / 중 청	(83)	10.4
광 주 / 전 라	(84)	10.5
대 구 / 경 북	(128)	16.1
부산 / 울산 / 경남	(33)	4.2
강 원 / 제 주	(299)	37.3
○ 국 정 운 영 평 가 ○	(483)	60.3
긍 정 평 가	(19)	2.4
부 정 평 가	(226)	28.3
모름 / 무응답	(289)	36.1
○ 이 진 형 ○	(263)	32.8
중 보 수 (0 -4)	(23)	2.8
중 보 수 (5 )	(221)	27.6
중 보 수 (6-10)	(176)	22.0
모름 / 무응답	(30)	3.8
○ 정 당 지 지 도 ○	(50)	6.2
한 나 주 선 진 당	(40)	4.9
민 주 노 동 당	(13)	1.7
친 박 연 대	(18)	2.3
창 조 한 국 당	(12)	1.5
진 보 신	(225)	28.1
기 보 신	(16)	2.0
지 지 정 당 없	(16)	2.0
모름 / 무응답	(16)	2.0

[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문1]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①매우 잘하고 있다	②대체 로잘하 고있다	①+②	③별로 못하고 있다	④전혀 못하고 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	(800)	7.0	30.4	37.3	41.8	18.5	60.3	2.4	100.0
○ 성남 별 ○ 남 여 자	(395) (405)	6.3 7.6	33.1 27.7	39.4 35.3	36.6 46.8	22.0 15.1	58.6 62.0	1.9 2.8	100.0 100.0
○ 연 령 ○ 19 - 29 세	(164)	1.7	22.2	23.9	47.1	25.9	73.0	3.1	100.0
30 - 40 세	(177)	4.0	13.8	17.8	49.5	29.8	79.3	2.9	100.0
40 - 50 세	(181)	4.1	27.7	31.7	48.4	18.9	67.3	1.0	100.0
이 상	(277)	13.8	47.6	61.4	29.4	6.7	36.1	2.5	100.0
○ 학 령 ○ 중 졸 이 하	(120)	17.5	44.4	61.9	29.1	5.1	34.3	3.9	100.0
고 졸 이 상	(240)	7.5	34.2	41.6	40.4	14.8	55.2	3.2	100.0
전문대 학이 상	(404)	4.1	23.6	27.7	46.3	24.8	71.0	1.3	100.0
모름 / 무응답	(35)	.0	35.1	35.1	43.2	18.1	61.3	3.6	100.0
○ 직 업 ○ 농 / 임 / 어	(42)	11.5	31.9	43.3	36.0	14.9	50.8	5.8	100.0
자 영 업	(109)	7.7	30.6	38.3	41.3	20.4	61.7	.0	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68)	7.1	27.1	34.2	46.7	16.1	62.8	3.0	100.0
생산 / 기능 / 노무	(42)	6.4	14.2	20.6	48.3	31.0	79.4	.0	100.0
사무주 관리 / 전문	(167)	6.0	23.6	29.7	44.7	23.0	67.8	2.6	100.0
주 학 부	(193)	9.8	35.7	45.5	41.2	11.0	52.3	2.3	100.0
무직 / 기타 / 무응답	(97) (82)	.0 7.2	24.6 48.5	24.6 55.7	44.5 30.1	28.8 9.7	73.3 39.7	2.1 4.5	100.0 100.0
○ 가 구 소 득 ○ 100 만원 이 하	(100)	11.3	38.8	50.1	35.2	8.0	43.2	6.7	100.0
101 - 200 만원	(157)	7.4	34.1	41.5	39.9	16.8	56.7	1.8	100.0
201 - 300 만원	(181)	8.9	29.2	38.1	41.0	20.9	61.9	.0	100.0
301 - 400 만원	(122)	5.8	25.4	31.2	46.6	20.5	67.2	1.7	100.0
401 만원 이 상	(175)	3.9	26.1	29.9	48.3	20.7	68.9	1.2	100.0
기타 / 무응답	(66)	4.3	32.7	37.0	32.4	22.5	54.9	8.1	100.0
○ 권 서 ○ 인 천 / 경 기	(170)	5.3	31.9	37.2	40.9	19.6	60.4	2.4	100.0
대 전 / 중 청	(220)	7.9	34.6	42.5	37.9	18.4	56.3	1.3	100.0
광 주 / 전 청	(80)	2.8	23.8	26.6	46.6	24.1	70.7	2.7	100.0
대 구 / 전 청	(83)	2.9	9.5	12.5	60.9	23.3	84.2	3.3	100.0
부 산 / 울 산 / 경 남	(84)	12.6	37.4	50.0	34.9	12.6	47.6	2.4	100.0
강 원 / 울 산 / 경 남	(128)	7.3	32.2	39.5	42.3	15.6	57.9	2.6	100.0
강 원 / 제 주	(33)	13.5	38.4	51.9	28.6	14.4	43.0	5.1	100.0
○ 국 정 운 영 평 가 ○ 인 정 평 가	(299)	18.6	81.4	100.0	.0	.0	.0	.0	100.0
부 정 평 가	(483)	.0	.0	.0	69.3	30.7	100.0	.0	100.0
모름 / 무응답	(19)	.0	.0	.0	.0	.0	.0	100.0	100.0
○ 이 진 형 ○ 성 향	(226)	3.3	21.2	24.4	44.5	29.7	74.1	1.4	100.0
남 도 (0 -4)	(289)	6.4	35.1	41.5	41.4	15.1	56.5	1.9	100.0
보 수 (5 -10)	(263)	10.5	32.7	43.2	40.4	13.4	53.7	3.1	100.0
모름 / 무응답	(23)	9.5	34.8	44.3	37.0	9.8	46.8	8.9	100.0
○ 정 당 지 지 도 ○ 한 나 라 당	(221)	16.6	62.3	79.0	17.8	2.2	20.0	1.0	100.0
민 주 선 진 당	(176)	2.5	8.7	11.2	54.1	32.0	86.1	2.7	100.0
자 유 선 진 당	(30)	6.2	24.2	30.4	57.5	12.1	69.6	.0	100.0
민 주 선 진 당	(50)	1.3	13.7	15.0	51.8	33.2	85.0	.0	100.0
친 박 연 동 대	(40)	8.0	25.0	33.1	53.5	13.4	66.9	.0	100.0
창 조 한 국 당	(13)	.0	18.7	18.7	45.8	35.5	81.3	.0	100.0
진 보 신	(18)	.0	.0	.0	36.6	63.4	100.0	.0	100.0
기 보 신	(12)	.0	24.6	24.6	59.0	16.5	75.4	.0	100.0
지 지 정 당 없	(225)	3.4	25.7	29.1	49.8	17.6	67.3	3.6	100.0
모름 / 무응답	(16)	6.8	18.2	24.9	26.2	24.8	51.0	24.0	100.0



[표 2] 정당지지도

[문2] 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한나라 당	민주당	자유선 진당	민주노 동당	친박연 대	창조한 국당	진보신 당	기타	지지하 않은 정당	무응답	계
		%	%	%	%	%	%	%	%	%	%	%
전체	(800)	27.6	22.0	3.8	6.2	4.9	1.7	2.3	1.5	28.1	2.0	100.0
성별	(395) (405)	24.2 31.0	23.3 20.7	3.6 4.0	6.4 6.0	5.1 4.7	2.0 1.4	2.9 1.6	1.3 1.6	29.3 26.9	2.0 2.0	100.0 100.0
연령	(164) (177) (181) (277)	15.7 16.6 24.1 44.1	22.4 30.5 23.2 15.5	4.5 4.2 4.1 2.8	7.4 8.7 9.6 1.7	1.8 5.3 2.5 8.1	4.9 .0 1.7 .7	1.9 2.7 5.5 .0	1.4 1.6 1.0 1.8	37.3 29.7 25.6 23.3	2.6 .6 2.6 2.0	100.0 100.0 100.0 100.0
학력	(120) (240) (404) (35)	48.9 29.0 20.6 26.9	21.4 19.7 23.2 26.6	.7 5.5 4.0 .0	2.5 3.9 8.7 6.0	1.7 7.5 4.1 7.9	.8 .8 2.6 .0	.0 1.1 3.3 5.0	2.6 1.9 1.0 .0	17.0 30.1 31.0 19.1	4.5 .4 1.5 8.6	100.0 100.0 100.0 100.0
직종	(42) (109) (68) (42) (167) (193) (97) (82)	33.9 31.3 22.9 25.3 21.5 38.0 16.7 25.7	27.5 18.4 31.3 33.1 22.1 17.5 24.5 18.0	2.7 3.5 5.9 4.0 5.1 2.9 3.5 2.4	8.3 7.9 4.3 .0 8.8 4.7 8.2 3.4	.0 8.4 5.3 2.4 4.9 5.1 2.2 6.7	.0 .9 1.3 .0 1.4 1.0 6.4 1.2	2.4 5.0 1.5 2.1 2.2 1.6 2.0 1.2	4.2 .0 3.0 3.6 1.8 1.8 .0 .0	14.4 22.8 24.5 27.6 31.5 26.2 35.3 34.3	6.6 1.8 .0 2.0 .7 1.1 1.0 7.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소득	(100) (157) (181) (122) (175) (66)	42.3 28.6 27.8 22.2 24.3 21.9	21.9 20.9 21.1 22.9 21.7 26.2	2.1 3.7 4.2 4.8 3.9 2.9	2.4 3.8 7.3 6.2 11.2 1.5	2.3 6.3 7.1 4.2 3.5 4.8	.0 1.8 2.2 2.3 1.0 3.0	.0 1.8 3.1 4.0 2.1 1.5	3.4 1.7 2.1 .0 1.1 .0	22.0 30.2 24.0 32.5 30.6 28.8	3.7 1.3 1.0 .9 .6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권역	(170) (220) (80) (83) (84) (128) (33)	26.3 30.8 14.8 5.0 44.8 34.6 30.2	21.1 21.9 24.7 49.5 6.3 16.2 14.1	4.7 1.3 11.6 4.4 2.4 3.2 .0	5.4 7.7 7.0 5.4 7.9 4.6 2.0	2.3 3.4 4.7 3.3 8.0 9.2 8.7	1.8 1.3 .8 3.1 .0 2.3 3.6	3.0 3.0 2.3 .0 3.5 .5 2.8	.6 1.4 2.7 6.0 .9 .0 .0	33.1 27.6 30.2 21.8 22.2 27.6 33.5	1.7 1.6 1.1 1.5 3.8 1.7 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정	(299) (483) (19)	58.4 9.2 11.8	6.6 31.4 25.2	3.1 4.4 .0	2.5 8.7 .0	4.4 5.5 .0	.8 2.2 .0	.0 3.7 .0	1.0 1.9 .0	21.9 31.4 42.9	1.3 1.7 20.1	100.0 100.0 100.0
이념	(226) (289) (263) (23)	15.8 29.4 36.0 25.6	29.9 22.2 15.2 19.1	3.6 3.3 4.0 7.9	11.9 6.1 1.9 .0	1.6 7.8 5.1 .0	2.5 .3 2.6 .0	4.5 1.3 1.5 .0	1.2 1.2 2.1 .0	28.4 26.4 30.0 24.7	.4 1.9 1.6 22.7	100.0 100.0 100.0 100.0
정당지지	(221) (176) (30) (50) (40) (13) (18) (12) (225) (16)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100.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